

태안선 고려인의 인골, 그는 누구인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9월 30일까지 테마전
청자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선원들의 삶 조명

12세기 강진에서 만든 고려청자를 신고 개경으로 향하다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침몰한 배가 있었다. '태안선'이라 불리는 배에는 도자기뿐 아니라 선상 생활용품 등 다양한 유물이 담겨 있었다.

또한 배가 침몰하면서 화물에 짓눌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도 있었다. 배가 침몰하는 급박한 시간에 탈출하지 못하고 수장된 고려의 선원은 시간이 흘러 인골로만 남았을 뿐이다. 과연 태안선의 인골은 누구일까?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규영)는 테마전 '태안선의 인골, 그는 누구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까지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전시는 수장(水葬)된 운명을 맞았던 어느 고려 사람의 생애도 더듬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전시는 전체 2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태안선에서 발굴된 철제 솥, 동이, 도기 항아리 등을 통해 고려 시대 선원들의 선상생활을 살펴본다. 바닷속에서 발굴된 유물은 당시 선원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 난파선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선원의 인골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시공간이라는 제약 없이 오늘의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고려 시대 '선원'의 신체 정보를 확인하고, 침몰 당시 피장자의 절박했던 상황을 추정해 본다. 인골은 좌우 어깨뼈(견갑골)와 오른쪽 윗팔뼈(상완골), 좌우



철제솥(위)과 도기 항아리.

아래팔뼈(전골), 무릎(경추)에서 등뼈(흉추)로 이어지는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결과 30대 수장된 성원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겹으로 쪼개져 쌓인 청자 더미에 깔려 발견된 정황으로 보면 갑자기 배가 침몰하면서 선적된 화물에 깔린 당시의 상황과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정황 등을 짐작할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전시를



태안선에서는 도자기 뿐 아니라 선상 생활용품 등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다. 특히 당시 고려 선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들이 발굴돼 관심을 끌었다. <해양문화재연구소 제공>

실감 나게 연출하기 위해 도자기 선적부터 '선원'의 선상생활, 침몰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주제 그림으로 재현했다.

이번 전시는 인골이 발견된 지 10년을 맞이해 고려 선원의 삶을 조명해보는 데 의미를 두었다. 2만5000여 점 청자에 가려 그 존재조차 주목받지 못한 태안선 인골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초점을 뒀다. 침몰한 배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선원

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그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 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해양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시와 체험 행사를 마련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061-270-205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키앙** 8월호 이색 도서관으로 피서 떠나요

연일 이어지는 맹렬 더위로 지쳐있는 독자들을 위해 파란 하늘과 새하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시원한 사진 한 장으로 8월호를 시작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키앙' 8월호(사진) 표지는 건축가인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한 신안군 압해읍 북지회관의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으로 장식했다. 주민 친화적으로 설계한 이 건물은 '2016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과 '독일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건축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유현준 교수는 방송과 신문칼럼 등을 통해 건축가의 시선으로 본 도시공간과 건축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소통하는 사람의 도시'를 꿈꾼다는 그를 예향 초대석에서 만나본다.

8월호 특집은 '도서관이 미래다'로 꾸며졌다. 요즘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든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책의 해'를 맞아 광주·전남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 '기적의 도서관'과 일본 다케오 시립 도서관을 찾아가 봤다.

신남도택리지 여정은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영광으로 떠난다. '굴비의 고장' 영광은 백수산도로와 4대중교 문화유적지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지를 품고 있다. 송이도와 물무산 행복숲 등 힐링지와 9월 상사화 축제를 앞둔 영광의 매력을 찾아 길을 나선다.

문항이 숨쉬는 문학관 기행은 민족의 대서사 소설 '아리랑'의 배경과 조정래 작가의 창작 여정을 만날 수 있는 김제 아리랑 문학관으로 떠나고, 동네책방을 전전하는 '책방별곡'은 책과 커피, 예술이 공존하는 도교 신주쿠의 명소 '카모메



북스'로 안내한다. 또 카페나 문화공간 등으로 변신해 역사인식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적산가옥(敵産家屋)'도 찾아가 본다.

'문화 광주' '관광 전남'을 완성시켜갈 민선 7기 비전도 들어본다. 이용설 광주 시장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경제부시장 도입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관 건립 등 다양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감만족 문화관광'을 제시하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관광객 6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이외에도 '어느 동양학자의 산파이고 까미노를 떠난 양희석 교수와 목포 출신 재독 평화주의 작가 정영창 화백, KIA타이거즈 1차 지명 받은 동성고 야구 에이스 김기훈 선수 등을 만나본다. 여행자가 노중훈의 꿈의 여행 '패션과 사랑의 도시, 밀라노&피렌체', 대중문화 평론가 배국남이 이야기하는 '박정희와 박동명, 그리고 장자연', 문화평론가 정윤수가 전하는 '영화음악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와 엘레니 카레인드루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정율성음악축제 '2018광주성악콩쿠르' 11일 개막



2018정율성음악축제 '2018광주성악콩쿠르'가 광주시 주최, 광주시립오페라단·광주문화재단 공동주관으로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호남신학대학교와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경연의 총 상금은 3700만원으로 1위 1500만원, 2위 1000만원, 3위 500만원, 향토상 200만원, 고향상 200만원, 정율성 가곡상 100만원, 우리 가곡상 100만원, 반주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 최고입상자에게는 '정율성음악축제' 공연 시험연기회가 주어지며, 특별상 중 '향토상'과 '고향상' 수상자는 오는 9

월 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주시립오페라단 수시공연 '솔리스트 앙상블(Solist Ensemble)' 무대에 함께 서는 기회가 제공된다.

1차 예선은 8월 11일, 2차 예선은 8월 18일에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본선은 8월 25일 빛고를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참가자격은 만 20세 이상 35세의 이하의 해외대학 유학생 및 내국인이며,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7일까지 광주성악콩쿠르 홈페이지(<http://vmcg.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만원이다. 문의 062-670-746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굴리굴리 친구들과 모험의 세계로 롯데 갤러리 2~29일 '와글와글 숲'전

롯데 갤러리가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2일부터 29일까지 굴리굴리의 '와글와글 숲'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그림책 작가이자 인기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현 작가(굴리굴리)의 일러스트 원화, 도서, 아트상품 전시 및 체험 전시로 꾸려진다.

전시명 '와글와글 숲'은 굴리굴리 작가의 그림책 친구들이 살고 있는 상상 속 세상을 뜻한다. 작가는 본인의 인기 캐릭터인 데이지, 포비, 시로, 루피 등 '굴리굴리 프렌즈'의 소중한 일상을 통해 순수하고

투명했던 어린 시절의 감성을 사랑스럽게 그려냈다.

스토리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겪게 되는 모험과 판타지 가득한 일상이다. 체험프로그램으로 부채 만들기, 예코백 만들기(유료)도 열린다.

김 작가는 국내를 비롯한 유럽 7-8개국에서 그림책을 출판해 신라호텔, 빙그레, 후지필름, CJ올리브영 등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문의 062-221-1807-8. /김미은 기자 mekim@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계절의 보양식 **삼계탕**
시원한 여름 별미 **물회**
담백한 별미 **민어회**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